

서울경제

파리로 간 한국 화가들 '레 파리시앙'

입력 2022.10.16. 오후 5:29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화랑 연합전
웅갤러리·본화랑·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
이응노·김창열부터 재불화가 9인전
80년대 도불 이배·한홍수 외 3세대 작가들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갤러리들의 연합전 '레 파리시앙'에 전시 중인 김창열의 '물방울' /
조상인기자

[서울경제]

파리는 화가의 꿈이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는 3년간 한국성과 자연미의 정수를 뽑아냈다. 이응노는 1959년부터 파리에 정착해 문자추상과 '군상' 연작 등 대표작을 완성했다. 김창열은 미국을 거쳐 1969년 옮겨간 파리에서 그 유명한 '물방울'을 탄생시켰다. 이성자, 남관, 한묵, 이우환, 권순철 등 독심있고 걸출한 화가들은 하나같이 파리를 거쳐갔다. 서양화를 택한 이상, 파리는 미술의 성지(聖地)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종로구 자하문로 299번지 한 건물에 나란히 동지를 튼 웅갤러리, 본화랑,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가 연합 기획전 '레 파리지앙(Le Parisiens)'을 열고 있다. 1930년대부터 100년 가까이 '재불작가'라는 이름으로 연대해 온 작가들 9명을 세대별로 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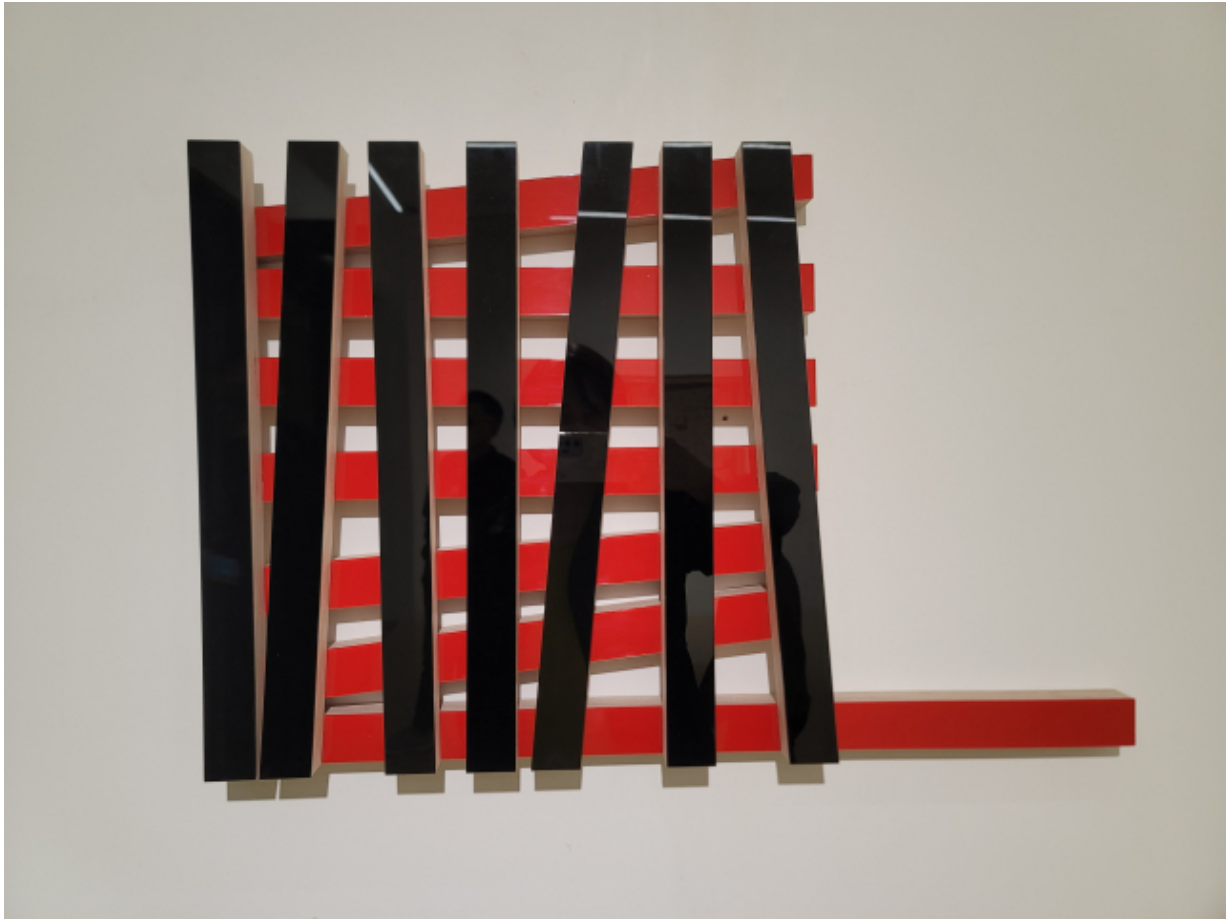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갤러리들의 연합전 '레 파리지앙'이 열리고 있는 웅갤러리 전시 전경. /조상인기자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갤러리들의 연합전 '레 파리지앙'이 열리고 있는 본화랑 전시 전경. /조상인기자

1세대 작가 이용노의 '문자추상'과 김창열의 '물방울'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명절이면 후배작가와 그 가족들까지 집으로 불러들인 '파리의 큰형님'이었다. 1980년대 이후 파리로 간 이배와 한홍수가 2세대로 분류된다. 이배의 '붓질 (The Brush Stroke)'과 한홍수의 '결'이 웅갤러리 2층 전시장에 나란히 걸렸다.

이번 전시의 진정한 묘미는 2000년대 이후 파리로 간 3세대 작가들의 다채로움이다. 새하얀 천을 당기고 비틀고 주물러 특유의 물성을 드러내며 감각을 환기시키는 이인혁, 자연의 색과 형태를 해체한 장광범과 홍일화, 질퍽하고 끈적한 물감 덩어리의 느낌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유, 기하학적 부조로 공간에 생동감을 더하는 진효석이 그 주인공이다. 전시는 29일까지.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갤러리들의 연합전 '레 파리지앙'에 출품된 진효석의 '컴포지션 0521'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갤러리들의 연합전 '레 파리지앙'에 출품된 이유 작가의 작품들.



자하문로 299번지 소재 갤러리들의 연합전 '레 파리지앙'에 출품된 박인혁의 '하얀 풍경'

글·사진=조상인 미술전문기자(ccsi@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10655>
